

마지막 설교

나레이션

자, 지금부터 지도를 보면서 출애굽 여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그림 기억나시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백성들은 아래로 이동하다가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엄청 불평합니다. 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을 먹게 됩니다.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지 45일이 지나서 아마도... 이 지점쯤? 신광야 어딘가에서 이번에는 먹을 음식이 없다고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곳의 삶이 이 곳 보다는 훨씬 좋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집니다. 또 다시 구름은 움직이고 이스라엘백성들은 좀 더 아래로 이동하여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 오기까지 2개월이 걸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백성들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들며 약 1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곳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백성들의 죄악은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름이 움직이고 이스라엘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다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땅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애굽을 몹시 그리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백성들은 바란광야의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곳이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이 곳에서 이스라엘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땅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다수의 정탐꾼들과 백성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출애굽 구원을 전면적으로 취소, 무효화하려는 시도가 또 다시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백성들은 가나안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약 3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만했고 그 사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또 다시 불평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갑자기 수많은 사막의 불뿔들이





나레이션

많은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또 다시 불평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때
갑자기 수많은 사막의 불뱀들이 이스라엘백성들을
무참히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으로
그 유명한 뱀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장대위에 뱀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건 말입니다. 이 뱀사건 후에 이스라엘백성은
아무리 족속과 큰 전쟁을 치르며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 가나안땅 건너편까지
올라간 이스라엘백성들은 모압평지에 진을 치게됩니다.
모압평지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백성들은
모세의 중요한 발표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세

하나님께서서는 제가 가나안땅으로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곳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의 말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가나안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곳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적으세요. 첫째,

나레이션

모세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 때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이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애절하고도 절박한 호소로 들려옵니다.
설교를 마친 모세는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후임자를 선정했습니다.

모세

이제 저는 이 곳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후로는 저를 이어 여호수아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나레이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모든 권한을 물려줍니다.
그리고는 홀로 느보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따라오지 못하도록 엄히 명한 후 고독하게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러 천천히 산 정상으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토록 열망했던 가나안땅을 바라보며
그 동안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완전한 안식으로 들어갔습니다.